

명의대여는 여러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님 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명의대여라고 한다.

주변을 보면 친인척이나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서, 또는 명의를 빌려 준 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해서, 심지어 금전적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명의를 대여해주는 행위는 자칫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보게 될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명의대여에 따른 여러 불이익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명의대여사업자의 처벌 형량 강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명의대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즉 명의를 대여 받은 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 조세법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 지게 된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물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하게 되지만,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

소유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재산을 공매 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되므로, 명의를 빌려주면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게 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명의대여는 법률상 보호되지 않는다

명의도용(남이 자기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모르는 것)에 관련된 사항은 보호받을 권리가므로 명의의 도용 등 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으로 접수할 수 있는 사항이나, 명의대여(남에게 이름을 빌려주어 남이 사용하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한 사항은 고충처리 신청도 할 수가 없다.

명의대여는 일종의 통정행위로서 대법원(대법원 2004.03.12 선고 2002도5090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서 그 허가명의 및 등록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허용될 수 없는 법률행위로 판단하여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